

# ‘혀의 죄악’과 신성모독 : 중세의 언어적 일탈

이 혜 민 (연세대)

- I. 머리말
- II. 일차사료의 문제 및 연구경향
- III. ‘혀의 죄악’
- IV. 신성모독
- V. 국왕권과 신성모독
- VI. 맺음말: 앞으로의 연구 지향점

## I. 머리말

한 사회 속에서 ‘일탈’로 규정되는 행위들은 소소한 일상적 일탈로부터 범죄로 규정되는 심각한 수준의 일탈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언어적인 일탈’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현실을 풍자하고 기존 질서를 해학적으로 뒤엎어보는 언어유희 같이 가벼운 일상적인 일탈도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언어폭력으로부터 사기나 위증 같이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심각한 일탈까지 다양한 일탈행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언어적인 일탈이란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각기 다르게 인식되는 사회적, 역사적 현상이기에, 역사가의 연구대상이 될 만한 주제이다. 오늘날 인터넷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그 심각성이 잘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상 다른 시대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특정한 언어폭력 혹은 언어적 일탈행위에 대하여 극형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발표문에서는 여러가지 언어적인 일탈행위 중에서도 특히 서양 중세시대의 신성모독 (blasphemi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세 전 시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개념정의, 사회적 태도 및 규제 방식이 변화하였으며, 중세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일탈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처음에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던 언어적 일탈이 중세 후기부터 종교권 및 세속 정치 모두에서 심각한 일탈로 인식되었으며, 16세기에 들어서는 결국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발표문을 통하여 신성모독이라는 언어적 일탈행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탈적’ 이라고 인식되는 행위의 역사적 상대성 및 사회적 특수성에 대해 환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발표문은 앞으로의 연구에 바탕이 될 초석을 놓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소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중세의 언어적인 일탈이라는 화두를 탐구하기 위하여, 중세의 언어폭력 및 그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의 일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중세의 신학자들의 ‘혀의 범죄들(les péchés de la langue)’ 중 하나라고 보았던 신성모독의 개념을 신학적, 사법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일차사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 II. 일차사료의 문제 및 연구경향

중세시대의 언어적 일탈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그것도 <중세 유럽사회 뒤집어 보기>라는 본 학회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세의 지배층과 엘리트 계층이 남겨놓은 사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성모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주요한 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중세의 신학자와 도덕론자, 설교사 등이 남긴 여러 문헌들, 즉 신학논설, 주해서, 설교문, 고해성사 지침서 등이 있다. 이러한 사료들은 거의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 규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문제에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도 필연적으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연구로는 바로 중세 후기 프랑스에서의 ‘신성모독’에 대해 법제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코린 르브뢰(Corinne Leveleux)의 연구<sup>1)</sup>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중엽 사이에 새로운 죄의 관념으로 부상한 ‘허의 죄악’에 대해 신학적 차원에서 분석한 카를라 카사그란데(Carla Casagrande)와 실바나 베키오(Silvana Vecchio)의 저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sup>2)</sup>

두 번째로는 왕령, 사면장, 관습법, 형법 등 사법적인 성격의 사료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료들은 언어적인 일탈이 단지 신학자들이나 도덕론자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론적인 개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에 대한 대응이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신성모독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중세 법제사가인 자클린 오아로-도디노(Jacqueline Hoareau-Donineau)의 연구가 눈에 띄는데, 중세 말기 왕권에 대한 신성모독, 즉 국왕에 대한 불경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연구 주제의 특성상 중세 말기의 사면장을 주요 사료로 분석하고 있다.<sup>3)</sup> 역사학자 중에는 클로드 고바르(Claude Gauvard)가 중세 말기의 언어폭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sup>4)</sup> 한편, 교회사가인 자크 시폴로(Jacques Chiffolleau)는 불경죄의 역사를 정치와 종교의 상호관계 속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불경죄라는 범죄의 개념을 통해 중세 왕권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 이 연구에서도 여러 법전 등이 기본적인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sup>5)</sup> 그런데, 이러한 사법적인 사료들 역시 법을 제정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권력자 및 권력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탈적인 행위를 저지

1) C. Leveleux, *La parole interdite. Le blasphème dans la France médiévale (XIIIe-SXIVe siècle) : du péché au crime*, Paris, 2001.

2) C. Casagrande et S. Vecchio, *Les péchés de la langue*, Paris, 2007.

3) J. Hoareau-Dodineau, *La violence verbale dans les lettres de rémission du Trésor des Chartres (XIVe-XVe siècle)*, Mémoire pour le D.E.A. d'Histoire du Droit, Université de Limoges, 1982 ; Id. "Les injures au roi dans les lettres de rémission", *La faute, la répression et le pardon*, Actes du 107e congrès national des sociétés savantes, Brest, 1982, Section de philologie et d'histoire jusqu'à 1610, tome I, Paris: C.T.H.S., 1984; pp. 223-240 ; Id. "Le blasphème au Moyen Age. Une approche juridique", *Atalaya : Revue Française d'Etudes Médiévales Hispaniques*, 5 (1994), pp. 193-210 ; Id., *Dieu et le Roi : La répression du blasphème et de l'injure au roi à la fin du Moyen 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moges et du Limousin, 2002.

4) C. Gauvard, *Crime, Etat et société en France à la fin du Moyen Âge: "de grace especial"*, vol. 2, Paris, 1991, pp. 728-734.

5) J. Chiffolleau, "Sur le crime de majesté médiéval", *Génèse de l'état moderne en méditerranée*, Rome, Collection de l'Ecole Française de Rome, no. 168, 1993, pp. 183-213.

르는 주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로는 문학적 사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티에 드 쿠앵시(Gautier de Coincy)의 『성모 기적담(Les Miracles de Nostre Dame)』과 같은 도덕적 문학 작품이나 성인전 등에서 성모나 성인에 대해 불경한 행동을 하거나 욕설을 퍼부은 이들이 어떤 천벌을 받는지를 세세하게 그려놓은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인 저술들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기 보다는 성직자계층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역시 지배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사료라는 점에 있어서는 위의 두 사료와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언어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어학자와 문학전문가들은 다양한 뉘앙스의 욕설이나 거친 언사 등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중세시대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신학적, 법제사적 연구처럼 중세문학을 일차 사료로 삼아 집중적으로 다룬 심도 깊은 연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sup>6)</sup>

### III. ‘혀의 죄악’

11세기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운동 이후 교회는 그 지배력을 공고하게 다지며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와 일상적인 생활태도를 교육시키고 규제하는데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물론 기독교인의 언어 예절에 대한 훈육과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 카사그란데와 베키오는 특히 1190년에서 1260년에 걸치는 시기를 ‘혀의 죄악의 시대(Le siècle du péché de langue)’라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혀를 놀리면서 저지르게 되는 죄악에 대해 도덕적인 차원에서 심오하게 고찰한 수많은 논설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가 지적한 것처럼, 바로 이 시대가 읽기와 쓰기 관행의 사회적 확대, 수서본과 그 독자층의 증가 및 상업, 행정 및 사법 문서의 급증, 그리고 스콜라 철학과 대학의 발전이라는 문자문화의 개화기인 동시에, 설교문화의 황금기로 대변되는 구술 문화의 정점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sup>7)</sup> 또한 이와 더불어 12세기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 크게 흥기하고 있던 이단적인 종교운동가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도들의 혀를 단속하고자 나서는데 결정적인 동기 중의 하나를 제공했을 것이다.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중엽에 걸치는 시기에, 알랭 드 릴(Alain de Lille)과 피에르 르 샹트르(Pierre le Chantre)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혀의 죄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체계화시켰다. 그 목록은 다채롭기 그지없다. 신성모독(blasphemia), 불평(murmur), 거짓말(mendacium), 거짓 맹세(perjurium), 위증(falsum testimonium), 언쟁(contentio), 저주(maledictum), 욕설(convicium), 중상모략(detractio), 아첨(adulatio), 허풍(iactantia), 빈정거림(ironia), 조롱(derisio), 저속한 언어구사(turpiloquium), 농담(scurrilitas), 어리석은 언사(stultiloquium), 수다(multiloquium), 무익한 언사(verbum

6) 아주 최근에 다양한 언어폭력의 양태에 대하여 법제사적인 연구와 문학적/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동시에 실은 논문집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질적인 시대와 주제를 나열하고 있는 이 논문집을 일컬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합’이나 ‘학제간 융합’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Eric Desmons et Marie-Anne Paveau, *Outrages, insultes, blasphèmes et injures: violences du langage et polices*, Paris, 2008,

7) C. Casagrande et S. Vecchio, *Les péchés de la langue*, Préface de Jacques Le Goff, p. 13.

otiosum)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각 죄악은 각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고유의 특징과 속성 및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침묵과 은둔의 수도생활을 지향하던 수도원 문화에서는 ‘수다’를 상당히 심각한 죄악으로 인식했던 반면에,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카시아누스(Cassianus) 같은 신학자는 신성모독을 칠죄종(七罪宗, septem peccata capitales)의 가장 근원적이며 으뜸가는 죄인 오만(superbia)으로부터 파생된 부수적인 죄악으로 인식하였다.

중세시대에 신성모독은 대체로 여러 혐의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죄악이자 으뜸가는 언어폭력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신성모독은 그 대상에 따라 신에 대한 불경한 모독과 국왕에 대한 모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불경죄(crimen majestatis, crime de lèse-majesté)라는 개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국왕에 대한 불경죄의 개념은 물론 종교적, 신학적인 신성모독의 관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중세인들에게 신성모독은 신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 및 초자연적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신의 진노를 사는 행위였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도유식을 통해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로서 신성성을 부여받은 국왕에 대한 모독, 혹은 국왕에 의해 파견된 관료들에 대한 불경한 언사 역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불경한 죄로 인식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신성모독에 대한 신학적, 사법적 차원의 개념정의 및 그에 대한 지배층의 대응, 즉 처벌관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V. 신성모독

성서에서 신성모독은 말이나 행동으로 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일컫고 있으며, 초기교회의 교부 시대부터 신성모독은 대단히 심각한 죄로 인식되었다. 중세 시기에도 신성모독은 심각한 죄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었기에 상당히 모호한 개념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12세기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알랭 드 릴(Alain de Lille)처럼 신성모독을 도덕적 죄악을 일부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12세기 중엽 이후부터 신학자와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신성모독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였고 신성모독이 혐의 죄악 중 가장 악랄한 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었다. 피에르 르 샹트르(Pierre le Chantre)는 신성모독을 신에 반하는 죄악으로 보았고,<sup>8)</sup>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최악의 언어적인 죄악이자 ‘신앙(fides)’의 대척점에 있는 반신앙적인 죄로 간주하였다.<sup>9)</sup> 많은 신학자들이 신성모독을 극악한 대죄(péché mortel)로 보았다.

신성모독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sup>10)</sup>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 대하여 거짓된 일을 확인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정의 내렸다. 즉, 그는 신의 본성에 대해 부정하고 의문을 가지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생각, 말, 글 모두를 신성모독의 행위로 보았고, 이러한 개념정의는 12세기 피에르 롱바르(Pierre Lombard)에 의해 계승되었다. 반면에, 9세기의 베네딕투스회 수도사인 에몽 도세르(Aymon d'Auxerre)는 신성모독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신에 대한 언어적인 공격, 즉 폭언에 강조점을 두었다.<sup>11)</sup> 그가 제시한 개념

8) Pierre le Chantre, *Verbum abbreviatum*, PL 205, col. 196.

9) C. Casagrande et S. Vecchio, *Les péchés de la langue*, p. 158.

10) Ibid., pp. 174-175.

11) "Blasphemare autem est contumeliam vel convicium aliquod inferre. (신성모독은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을 뱉

은 신학적으로는 덜 명확하지만,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념으로 중세 후기의 교회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3세기 도미니쿠스회의 뱅상 드 보베(Vincent de Beauvais)와 에티엔 부르봉(Etienne Bourbon) 역시 예몽 도세르가 정의내린 신성모독의 개념을 따랐고, 교회의 사목활동에서 신자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신성모독을 언어폭력과 결부시켜서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념정의는 종교적, 신학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세속법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더 넓게는 일반 신도들의 정신세계에도 깊이 각인되었다. 신도들에 대한 설교와 사목활동을 통해 중세 교회는 신에 대한 불경한 언사를 일삼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면 인간의 입이 악마의 입으로 변할 것이며, 사후에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현실에서도 신성모독이라는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세속법에 의한 사법적인 처벌이 뒤따라 왔다.<sup>12)</sup> 황제의 법령집과 교황령에서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신체형, 벌금형, 금식형 등을 부과하거나, 빈자들에게 대한 자선을 하도록 하는 등 보속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죄인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영적인 형벌을 가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사지절단형이나 사형이 선고될 수도 하였다.<sup>13)</sup> 하지만 중세 말까지 신성모독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사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드문 편이었다.

신학자들은 신성모독의 종류를 세분하여, 의도적으로 신을 모욕하는 직접적인 신성모독과 감정이 폭발해 오르거나 화가 날 때 혹은 농담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부주의하게 신을 모욕하는 욕설을 내뱉는 간접적인 신성모독을 차별화하였다. 후자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죄로 인식되었다. 한편, 세속법에서는 직접적인 신성모독은 신에 대해 저지르는 불경, 그리고 간접적인 신성모독은 성모나 성인들 같은 중개자들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sup>14)</sup> 흥미로운 점은 중세의 교회법에서는 악마에 대해 저주나 저지분한 욕설을 하는 것을 죄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좋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권장할 만한 행동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중세의 언어폭력은 욕설을 하는 행위 그 자체 보다는 그 욕설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더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성모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신학적인 사료들은 규범적인 개념정의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실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료들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신과 성모, 성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욕설을 내뱉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지 속어문학에서만 그 흔적과 편린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sup>15)</sup> 어쨌든 13세기의 도덕주의자들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도처에서 신성모독을 일삼는다고 한탄하는 기록이 꽤 많이 남아있고, 이 시기에 사용된 일종의 교육 자료였던 교훈적인 예화(exemplum)나 시각적 이미지에 신을 모욕하는 언어폭력을 행했다가 악마에 잡혀가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면, 중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걸쭉한 욕설들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종교적인 의도를 그 근본에 깔고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중세교회는 나름 언어적인 “문명화”를 꾀했던 것이 아닐까?

---

어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Haymon d'Auxerre, *Comm. in Is*, PL 116, col. 719.

12) C. Casagrande et S. Vecchio, *Les péchés de la langue*, pp. 179-180.

13) 중세 시대의 형벌 집행에 대해서는 Barbaral Morel, *Une iconographie de la répression judiciaire. Le châ-timent dans l'enluminure en France du XIIIe au XVe siècle*, Paris: C:T:H:S., 2007을 참조할 것. 이 책은 중세의 시각적인 이미지 사료, 특히 여러 법전이나 역사서 등 수서본의 채색 삽화들에서 나타나는 중세의 형벌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그 주된 관심사를 두고 있다.

14) J. Hoareau-Dodinau, "Une approche juridique", p. 195.

15) C. Casagrande et S. Vecchio, *Les péchés de la langue*, pp. 178-179.

## V. 국왕권과 신성모독<sup>16)</sup>

신성모독에 대한 세속권력의 사법적 처벌규정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카롤링거 왕조 시대와 카페 왕조 시대에,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공포하는 칙령들이 공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왕권이 신성모독의 처벌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이를 왕권강화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왕조 국가의 성장 및 국왕권 강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13세기부터였다.

13세기 중엽 프랑스 국왕 루이 9세(후일의 성왕 루이)는 ‘대단히 기독교적인 군주(rex christianissimus)’이자 교회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신성모독에 대한 금령 및 처벌규정을 연이어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제7차 십자군을 떠났다 이집트에서 참패를 당한 후 포로생활 끝에 귀환한 루이 9세는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계획하면서, 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왕국 전체에 대대적인 도덕적 정화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선 1254년 12월 칙령을 포고하면서, 신과 성모 마리아, 성인들에 대한 불경한 언사를 금지시켰으며, 그 외에 주사위 놀이를 금지시키고 왕국 관리들의 창녀촌과 주점 출입 역시 금하였다. 약 10여년 후 마침내 제8차 십자군을 떠나기 직전인 1268년에도 새로운 칙령을 발표하여, 신성모독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처벌을 공포하였다.<sup>17)</sup>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치적인 함의 역시 포함하고 있었다. 프랑스 국왕이 왕국의 통치자이자 신앙의 수호자로서 신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의 황제권과 교황권에 대하여 프랑스 왕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한편,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게르만 왕조들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국왕의 위엄(Majestas) 및 국왕에 대한 불경죄에 대한 로마법적 전통에 기반한 관념이 12세기 중엽부터 서유럽 사회에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고,<sup>19)</sup> 13세기 프랑스에서는 왕권 강화작업과 발맞추어 국왕에 대한 불경죄, 즉 국왕모독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세속 왕권이 불경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전유하기 시작한 것은 발루아 왕조가 들어선 14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다.<sup>20)</sup> 왕권이 미약했던 발루아 왕조의 초대 왕과 왕비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은 당시 사면장의 발행부수의 증가를 통해 비추어볼 수 있다. 특히 백년전쟁 시기 동안 1358년 에티엔 마르셀의 난 등으로 왕가의 권위가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과거에는 도덕적 죄로서 인식되었을 뿐 사회적, 정치적인 범죄행위로는 인식되지 않았던 불경죄가 점차 공적인 범죄영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즉, 국왕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 행동 외에도, 국왕의 신성한 권위에 타격을 입히는 언어폭력 역시 대역죄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인 처

16)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자클린 오아로 도디노의 연구를 기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한 레퍼런스로 꼽을 수 있다. (각주 3의 참고문헌 참조).

17) J. Le Goff, *Saint Louis*, Paris, p. 291 et passim.

18) 같은 시기에 ‘국왕은 자신의 왕국내의 황제이다(Rex est imperator in suo regno)’라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19) J. Chiffolleau, "Sur le crime de majesté médiéval", p. 192.

20) J. Chiffolleau, "Sur le crime de lèse-majesté médiéval" ; J. Hoareau-Dodinau, *Dieu et le roi : la répression du blasphème et de l'injure au roi à la fin du Moyen Âge*, Limoges, 2002.

벌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15세기 초에 들어서면 국왕모독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다. 이 시기에는 국왕권에 귀속되어 있는 법정 및 국왕대리인을 모독했을 경우 불경죄 적용하기도 하였다.<sup>21)</sup> 세속법에 의한 ‘신성모독’의 정의는 교회법에서 내려지는 정의에 비해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처벌의 강도는 훨씬 높았다. 때로는 죄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명예롭고 이로운 보상(amende honorable et profitable)’을 요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추방형, 손목 절단과 같은 신체형 등 공개적인 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혹한 처벌 법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불경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항상 큰 처벌을 받았던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사면장을 발부받아 죄를 면하곤 했다. 불경죄 및 사면장 연구의 전문가인 자클린 오아로도디노는 중세 말기에 발행된 사면장 중에서 언어폭력에 관련된 것의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언어적인 일탈에 대해서 중세사회가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신에 대한 불경, 즉 신성모독은 15세기까지 그 개념 정의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단지 거짓선서를 하거나(jurer le "vilain serment"), 신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신성모독으로 분류되곤 했는데, 이러한 점은 중세 말까지도 신성모독이 아직 사회적인 차원에서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세 말기 이래 마녀와 사탄에 대한 사회적인 공포가 급증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16세기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하여 종교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과 얽혀 첨예하게 불거지면서 신성모독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sup>22)</sup>

## VI. 맺음말: 앞으로의 연구 지향점

이처럼 ‘신성모독’ 혹은 ‘불경죄’라는 구체적인 언어적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신학적, 종교적, 법제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사가나 문화사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탈과 소외의 문제는 단지 신학적, 법제사적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언어폭력을 포함한 언어적 일탈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언어적 일탈에 대한 사회문화사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사료의 한계를 딛고 언어적 일탈행위를 어떻게 뒤집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우선 신학적, 사법적 사료들의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문학적인 사료들과 시각적인 사료들의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분석하는 작업부터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21) C. Gauvard, *Violence et ordre public au Moyen Age*, Paris, 2005, p. 43.

22) C. Leveleux, *La parole interdite. Le blasphème dans la France médiévale (XIIIe-SXIVe siècle) : du péché au crime*, Paris, 2001.